

# 5월 지육시세는 2,800원/kg 예상

2002년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2003년 3월 재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많은 양돈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매년 4월은 돼지가격의 상승이 본격화하는 달이다. 식목일이나 한식을 중심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돼지고기 가격이 예년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4월 첫 주에는 한식과 식목일 연휴로 소비가 증가되고,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이동제한 지역이 증가하여 비육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돼지가격이 예년과 같은 추세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4월 2주차에는 전국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출하두수의 증가로 공급이 증가되어 돼지가격을 하락시켜서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는 다시 내려가 2,300원대를 형성하였다.

2003년도 5월의 돈가는 예년과 비슷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5월의 출하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번식돈 사료생산량은 10개월 전인 2002년 7월의 번식돈 사료생산량이다.



권혁만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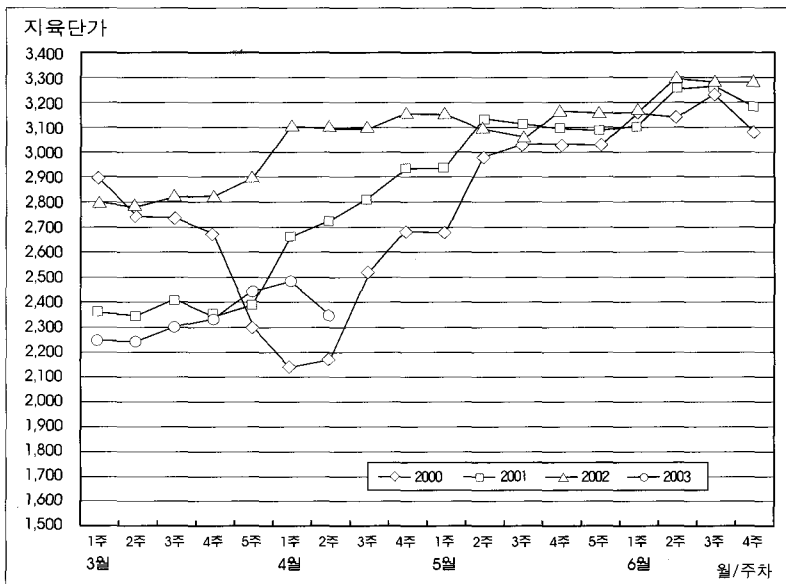
(주)선진한미음  
모돈/비육계열팀

2002년 7월의 번식돈 사료생산량은 89,242톤으로 전월보다 3%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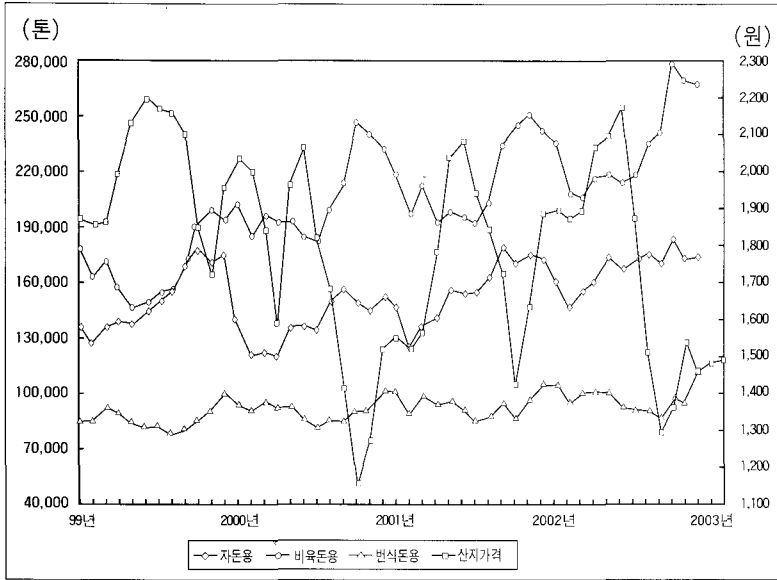
이러한 사료량의 감소추세는 2002년 6월 번식돈사료 물량이 전월인 2002년 5월의 사료물량보다 9% 감소한 후 연속하여 3% 감소하여, 출하물량의 감소는 10% 내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포유자돈의 설사병(PED 등) 때문에 대략 5월의 출하예정돈인 전년 11~12월 생산자돈두수가 폐사가 늘어나 출하육성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급물량의 감소에 따른 돈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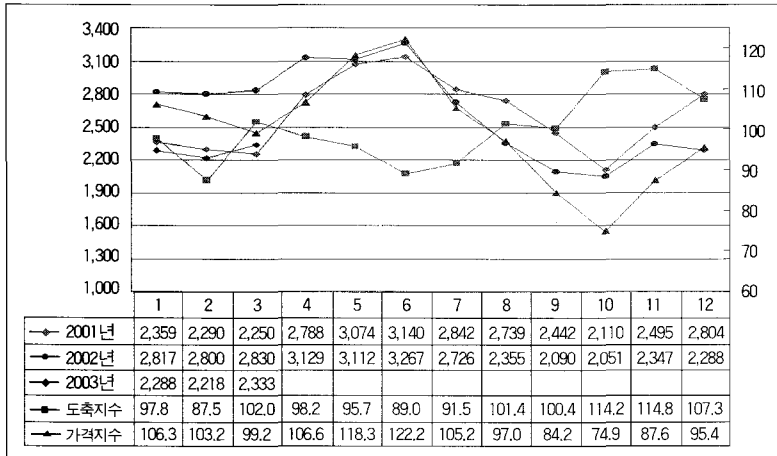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의 전국 주요 12개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3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그러나, 공급불량의 감소는 생돈의 출하 부분일 뿐이고 냉동제품인 수입돈육과 비선호 부위(수출부위)의 재고량의 급증 때문에 재고돈육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는 육가공업체가 재고물량을 감소시킬 수 없어, 소비량 증가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돼지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3년 3월에 조사한 돼지 사육두수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인 9,027천두이나 전년 동기보다는 3.5% 증가하였고, 모돈두수 또한

985천두로서 전분기보다 25천두(2.6%), 전년동기보다는 27천두(2.8%) 증가하여 돼지 가격의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5월 출하물량인 전년 11~12월 출생한 2~4개월령 두수가 2,909천두로서 전년동기 2,862두보다 1.64%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하물량의 감소 추세는 예년보다는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측면에서는 5월 상순에 연휴 및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이 몰려 있어서 상순에 돼지고기의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순에 몰려있는 연휴 등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게 되면 돼지가격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종료되고 북한 핵문제도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커지

면서 급냉되었던 소비시장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소비심리가 풀려 되살아나게 되면 돼지가격의 상승이 기대된다.

결국 2003년 5월 돈육시장의 변수는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등의 질병변수와 소비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돈가의 회복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3년 5월 전국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가격은 2,800원을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